현장과 시각

통합공천 더 잘해야 하는 이유

홍행기
정치부 차장

11일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과 민주당 간의 통합이 전격 발표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민주당'(가칭)의 18대 총선 후보 공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역의원이나 신당,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그리고 무소속 후보를 가리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누구에게 유리할지' 저마다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치판을 둘러싼 소문도 무성하다. '이번 공천에서 민주당 어느 유력 후보를 전국구로 보내기로 했다더라' '현역의원 누구 누구가 물갈이 된다더라'는 등 '카더라'식 유언비어가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하게 소용돌이치는 정치지형 속에서도 단 한가지, 사실로 굳어져 가는 명제가 있다. '새 당의 공천장은 호남에선 곧 당선증'이라는 공식이 그것이다.

광주 광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의 한 예비후보는 "당이 하나가 없어지는 만큼 앞으로는 공천 경쟁이 불을 뿜을 것이다"라며 공천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신당 소속으로 남구에서 표밭갈이를 하고 있는 한 예비후보도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줄서기가 벌써 시작되고 있다"고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뜻있는 지역인사들 사이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더욱 공천을 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가 나오든 이길 가능성이 큰 선거라면, 지역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물이 공천돼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 북구에 출마한 신당의 한 예비후보는 "당의 이름만 앞세워 자격미달의 인물을 공천할 경우, 개혁공천을 기대해 온 지역민의 반발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총선 이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달 초 광주일보가 지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을 간절히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여로 돌변한 한나라당에 대응하고, 정치적으로 고립된 호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정당'의 출현을 그만큼 간절히 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능력있는 정당은 능력있는 의원들의 합(合)'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는 4월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은, 'DJ 우산'이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과 신당의 통합으로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호남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실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심을 저버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 잘못된 공천으로 호남 정치의 새싹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 redplane@kwangju.co.kr

한미FTA 동의안 상정 무산

민노당 반발로…17대 국회 통과 불투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는 11일 오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동의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통외통위원장실을 점거해 회의가 무산됐다.

통외통위 전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지만 민노당 천영세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소속 의원 8명이 통외통위원장실을 점거한 채 김 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다.

김 위원장은 "무리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제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아도 간사에게 (위원장) 직무대행을 넘기면 끝난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설득했지만 민노당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단병호 의원은 "오늘은 민노당 의원들에게 감금당해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하시라"고 말했고, 현애자 의원은 "동의안을 상정하는 순간 의원들은 처리 압박을 받을 것이다. 상정 자체가 졸속심의를 예정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막았다.

강기갑 의원은 "지금 상정을 못 막으면 나중에 포크레인으로도 (동의안 통과를) 못막는다"고 했고 천영세 직무대행도 "오늘 동의안 처리 안한다는 약속만 해달라. 볼썽사나운 모습 (언론에) 나가지 않게 하자"며 김 위원장의 옷자락을 놔주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민노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에 주저앉고 말았고, 한때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간사나 한나라당 진영 간사에게 직무대행을 넘기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신당측에서 난색을 표해 결국 오전 11시30분께 회의를 유회시켰다. 김 위원장은 회의 유회 후 양당 간사와 향후 일정을 논의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재소집해 비준 동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17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현 정부 임기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당은 총선 이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앞에서 민노당 당직자들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상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파죽지세'

美대선 민주 메인주 경선서도 힐러리 제압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9일 루이지애나·워싱턴·네브래스카 주에서 열린 슈퍼토요일 경선에서 완승을 거둔데 이어 10일 메인 주에서도 파죽지세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게 승리를 거뒀다.

오바마는 이날 메인 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59%의 지지율을 얻어 41%를 얻은 힐러리를 제쳤다.

오바마는 메인 주에서 배수진의 각오로 반격을 노리던 힐러리에게 또다시 타격을 가함으로써 예측불허 상황을 지속해오던 두 주자 간의 힘의 균형을 깰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오바마는 오는 12일 미국 정치 1번지인 워싱턴 D.C.인근에서 벌어지는 워싱턴 D.C.(대의원 38명)와 버지니아주(101명), 메릴랜드주(99명) 등 '포토맥 프라이머리' 예비경선을 앞두고 이틀간 전승을 거둠으로써 힐러리와의 대의원 확보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오바마는 포토맥 프라이머리에서는 흑인(워싱턴 D.C.)과 진보성향(메릴랜드) 유권자들의 지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메인 주는 대의원 수가 24명에 불과해 힐러리, 오바마 모두 실리 면에서 큰 의미는 없다.

한편, 포토맥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선거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힐러리의 반격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힐러리는 주말에 실시된 워싱턴 주 등 3개 주 경선에서 오바마에게 완패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선거캠페인 책임자를 교체했다.

힐러리는 그동안 선거캠페인을 진두지휘해왔던 패티 솔리스 도일 대신 새로운 선거캠페인 책임자로 그의 오랜 측근이자 선거전문가인 매기 윌리엄스를 임명했다. 도일은 선거자문역을 맡아 앞으로 계속 힐러리의 선거를 도울 예정이다. /연합뉴스

"에드워즈 도와 주세요" 힐러리·오바마 구애 경쟁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을 지난 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ABC 방송 인터넷판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힐러리는 지난 7일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채플 힐에 위치한 에드워즈 전 의원 자택을 찾아 그와 면담했는데 구체적인 회동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힐러리는 지난 7일 버지니아 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 2시간 가량 늦게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지각사태'가 에드워즈 전 의원 방문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힐러리는 에드워즈 전 의원이 경선을 포기한 직후에는 "에드워즈 전 의원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지난 9일 메인 주 루이스턴에서는 "존(에드워즈)에게 백악관에서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후보도 11일 에드워즈 전 의원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소식통들이 전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낙점을 받기 위해 힐러리와 피말리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오바마 후보 입장에서도 에드워즈 전 후보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선거전문가들은 에드워즈 전 의원의 대중주의적 노선이 오바마 후보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는 경선 포기를 선언할 당시 빈곤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BBK 특검, 국세청 압수수색

李당선인 등 납세기록 확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당선인의 친인척이 연루된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11일 "국세청이 특검팀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수사기한이 촉박한 만큼 협조를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무실을 직접 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 요구했던 자료만 전달받는 실질적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 의혹,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당선인과 그의 친형 이상은씨, 처남 김재정씨를 비롯해 ㈜한독산학협동 관련자의 납세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은 1994년 구축된 이후 자료의 검색이 가능해 특검팀은 김재정, 이상은씨가 포스코개발에 도곡동 땅을 263억원에 매각했던 1995년 양도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법률이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료를 줄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김만복 국정원장 사표 노대통령 27일만에 수리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방북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원장이 지난달 15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27일만이다. 국정원은 차기 정부의 첫 국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차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천 대변인은 "국가 핵심정보기관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출마 장관들의 퇴임 시점에 즈음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동티모르 대통령, 관저서 반군에 피격

수술후 안정…곧 호주 이송

호세 라모스-호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반군의 총격으로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나 수술 후 안정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호주로 이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공영방송인 ABC는 11일 라모스-호르타 대통령의 측근을 인용, "대통령이 안정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호주의 다윈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동티모르 정부군 대변인인 도밍고스 다 카마라 소령은 이날 새벽 수도인 딜리 외곽에 있는 라모스-호르타 대통령 자택에서 반군과 경호원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라모스-호르타 대통령이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며 반군 지도자인 알프레도 레이나도 소령은 사살됐다고 밝혔다. 카마라 소령은 총격전으로 경호원도 1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라모스-호르타 대통령은 앰뷸런스에 실려 호주군이 운영하는 수도 딜리의 야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매월초
	주택관리사	2개월	매월초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료후 환급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가장 확실한 합격의 길!! 무등과 함께 하십시오!! =
7·9급 공무원 완전대비
강좌직종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47년 동안 합격시켜 본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
정규이론D반 모집 = 2개월 완성 이론반 =
개강 2월15일
9급 문제풀이반 = 1개월 완성 코-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9급 공무원 합격 大 특강
개설직종 :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직, 기술직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완성)
9급 이론짝수반 (2개월완성)
개강 3월3일
전직종 첫진도
사전예약접수중
합격률 1위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062) 252-0252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대/상 ✣
• 유치원, 초 · 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 · 중 · 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지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 · 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 · 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뒤 무등고시학원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교육장소 · 광주(금남로 무등고시학원) · 목포(하동 숲속이야기 평생교육원) · 순천(연향동사거리 GMB영어학원) 문의 : (062)434-7857
★ 각종 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등) 출장 공연★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